

Vol.여름



꽃섬에서 온
여름 편지

꽃섬 남해

NAMHAE ESSAY_ 남해에서 온 편지

SEASONS ISSUE_ 여름 바다 남해

SPECIAL PLACES_ 상주면&미조면

HIDDEN SPOTS_ 보물찾기

NAMHAE TRAVEL_ NEWS





꽃섬 남해

NAMHAE ESSAY : 꽃섬 남해

남해에서 온 편지

SEASONS ISSUE : 여름 바다 남해

이슈 기획 _ 마린 액티브

남해군 요트학교 | 엘림마리나&리조트 | 남해 말라끼서프 | 설리체험마을

사색의 바다 사촌 해변 | 두곡월포해변 | 모상개해변

걷는 바다 조도 바래길 | 호도 바래길

SPECIAL PLACES : 상주면&미조면

상주은모래비치 | 미조항 활어멸치위판장 | 스페이스 미조

상록숲&무민사 | 설리스카이워크

HIDDEN SPOTS : 보물찾기

윤스키친 | 가산식당 물회 | 유서방 회 떠가시다 | 명이네식당 | 옐로우츄도넛

촌집 화소반 | 1976해주핫도그 | 돌창고 프로젝트 | 옷채아트 | 이동복떡집 | 앵강마켓

남해 핫 캠핑장 남해군 힐링국민여가캠핑장(앵강다숲)

상주은모래비치 오토캠핑장 | 송정솔바람해변캠핑장

남해 핫 포토존 상주은모래비치 고개 전망대 | 앵강만 포토존 | 미조 바다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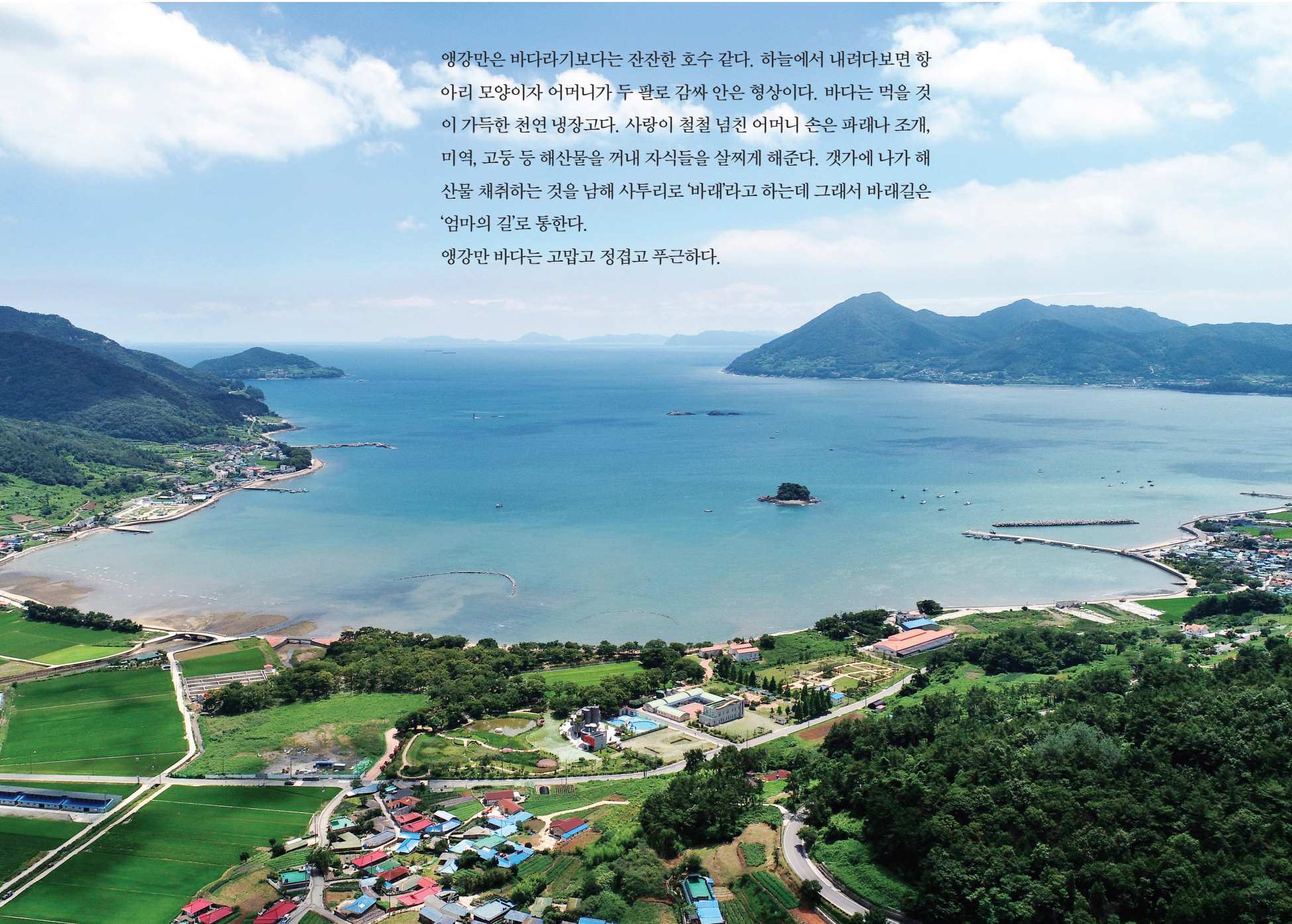
금천갯벌체험장 연인 포토존 | 토피아랜드 편백나무숲

NAMHAE TRAVEL NEWS

남해 바래길 조도, 호도 개통식 | 남해관광문화재단 관광창업교육 실시



어머니의 품처럼 정감 있는 **남만 코스**



앵강만은 바다라기보다는 잔잔한 호수 같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항아리 모양이자 어머니가 두 팔로 감싸 안은 형상이다. 바다는 먹을 것이 가득한 천연 냉장고다. 사랑이 철철 넘친 어머니 손은 파래나 조개, 미역, 고등 등 해산물을 꺼내 자식들을 살찌게 해준다. 갯가에 나가 해산물 채취하는 것을 남해 사투리로 '바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래길은 '엄마의 길'로 통한다.
앵강만 바다는 고맙고 정겹고 푸근하다.



위로받고 싶은 절집, 용문사

바위의 향연을 뽐내는 보리암이 부잣집 미인이라면 용문사는 순수하고 질박한 시골 여인네 같다. 그래서 편안하며 순수하다. 일주문을 거치면 계곡이 가로막는다. 둥근 아치형 다리를 건너 천왕각을 지나 다시 계곡을 건너 봉서루에 닿는다. 누각 아래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보물 제1849호)의 자태가 서서히 드러난다.
사찰명에 '용'이 들어가서 그런지 길은 용이 휘감아 도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봉서루 아래에는 길이 6.7m의 엄청나게 큰 구시통이 용문사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 1000명분의 밥이 담겼던 그릇으로 그 규모만 봐도 얼마나 사세가 컸는지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용문사 승려들이 승군을 조직해 왜적과 맞서 싸웠을 때 밥을 담았던 밥통이란다. 대웅전 뒤쪽 언덕에는 근사한 차밭이 놓여 있다. 알싸한 차향을 맡으며 아래를 내려보니 용문사가 앵강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에 또 하나의 숨은 볼거리는 스님의 요사채를 지키고 있는 진돗개다. 살포시 미소 짓는 모습을 잊지 못하겠다.
세파의 때를 훌훌 떨쳐버리고 싶다면, 때 묻지 않는 절집 용문사를 찾아라.

이국적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미국마을

용문사 아래는 그림 같은 미국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재미교포가 고국으로 돌아와 노후를 위해 지은 미국식 목조주택이다. 초입에 자유의 여신상까지 서 있어 미국 냄새가 폴폴 난다. 만약에 마늘 텃밭이 없었다면 텍사스의 작은 마을처럼 보였을 것이다. 최고의 볼거리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다. 나무는 바다를 향해 뻗어 있어 미술 수업의 원근법 구도를 보는 듯하다. 대다수 주택은 펜션으로 운영되며 예쁜 정원과 마



당을 가지고 있다. 이국적인 공간에서 하루 쉽표를 찍어보면 어떨까.

르누아르의 수채화, 앵강다숲마을

앵강만이 거대한 꽃이라면 꽃술에 해당하는 곳이 앵강다숲마을이다. 산과 들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쉽터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숲은 방풍림으로 400여 년 동안 마을은 물론 논과 밭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 사부작사부작 해안길을 거닐다가 벤치에 풀썩 주저앉아 바다만 바라봐도 힐링이 된다.

난대림 숲속 산책로를 따라 속내로 들어가면 해당화, 히어리, 원추리, 해국, 꽃무릇 등 한국의 야생화가 사계절 만발해 마치 르누아르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숲속에 놀이터와 잔디 운동장까지 있어 아이들은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하루쯤은 지붕 없는 학교에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곳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휴양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몽돌 굴리는 파도 소리도 고마운데 은하수를 이불 삼아 눈을 붙일 수 있으니 잊지 못할 추억거리 하나 만들 것이다.

앵강다숲에는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남해의 바래길은 23개 코스, 250여 km나 이어진다. 제주 올레길에 뒤지지 않는 황홀한 해안길이다. 이곳에서 안내지도와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기다 부산 오륙도에서 해남의 땅끝마을까지 1,470km나 연결된 남파항길 여행지원센터도 앵강다숲에 자리하고 있다. 앵강다숲은 바다 건너 길의 메카인 셈이다. 옥상에 오르면 리클라이너 체어가 있어 이곳에 발을 뻗고 누우면 남해 금산과 앵강다숲이 시야에 들어온다. 여행자라면 커피, 메밀차, 보이차 등을 마실 수 있는 무인 셀프바가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를 음미하자.

힘들 때 내달려라, 환상의 앵강만 해안길

신전-원천-벽련-두모-상주까지는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달리는 환상의 해안길이다. 길은 해안선을 따라 이리저리 굽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연달아 이어져 마치 산전수전 겪은 남해 사람들의 인생길 같다. 만약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이 길을 내달려라.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동반자와 함께 이곳을 달린다면 얼음장 같은 관계는 사르르 녹을 거다. 특히 해 질 무렵 벽련마을이나 두모 근처에서 바라본 노을은 앵강만의 바다를 붉게 물들여 거대한 초장 그릇처럼 보인다. 길가에 경치 좋은 횃집이 여럿 있으니 노을과 생선회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큰 호사겠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치 좋은 운전면허시험장이었던 곳은 지금 고카트경기장으로 바뀌었다. 남해 금산 자락 고개를 넘으면 상주 해변이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노송 우거진 해변에 포옥 안기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남해 바다에서 재밌게 노는 법

남해 바다 어디까지 가보았나.
남해 여름 바다는 이색 체험 거리가 가득하다.
독일마을 아래 노을 맛집으로 불리는
물건항에 자리한 남해군 요트학교에서
요트를 배워도 좋고,
맞은편 엘림마리나&리조트에서는
제트스키 체험과 호화요트 승선이 가능하다.
눈발이 내려왔을 듯 하얀 해변 모래가 인상적인
설리해변에서는 스노클링과 카약,
생활낚시까지 운동 즐길 수 있다.



남해 바다 즐기기 요트 타고 서핑하고 낚시까지

남해는 해양레포츠 천국이다. 특히 여름에는 스노클링, 낚시, 윈드서핑, 요트까지 남해에 가면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역동적인 여름 바다를 즐기고 싶다면 당장 남해로 가자. 한 번에 즐기고 싶은 해양레포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이 즐거운 세일링! 꿈꾸는 세일링! 남해군 요트학교

‘즐거운 세일링! 꿈꾸는 세일링!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남해군 요트학교의 슬로건이다. 독일마을 아래 물건리방조어부림 오른쪽 끝에 자리 잡은 남해군 요트학교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학생들이 요트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과 정부터 입문, 숙련과정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덩기요트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해군 요트학교는 대기자들이 많을 정도로 교육 과정 인기가 높다. 요트학교는 세일링 기술과 인명구조, 입출항 숙련 등 전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크루저 요트 체험도 인기가 많다. 남해군민이나 남해군 학생들은 체험료도 20% 할인해 준다. 주말에는 여행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30번 길 42-26 | 전화 055-867-2977
이용시간 09:00~18:00 | 요금 덩기요트 체험과정 1일 30,000원 2일 50,000원,
크루저 요트 체험 1인 20,000원 (4인 이상 예약 후 이용 가능) | 주차 가능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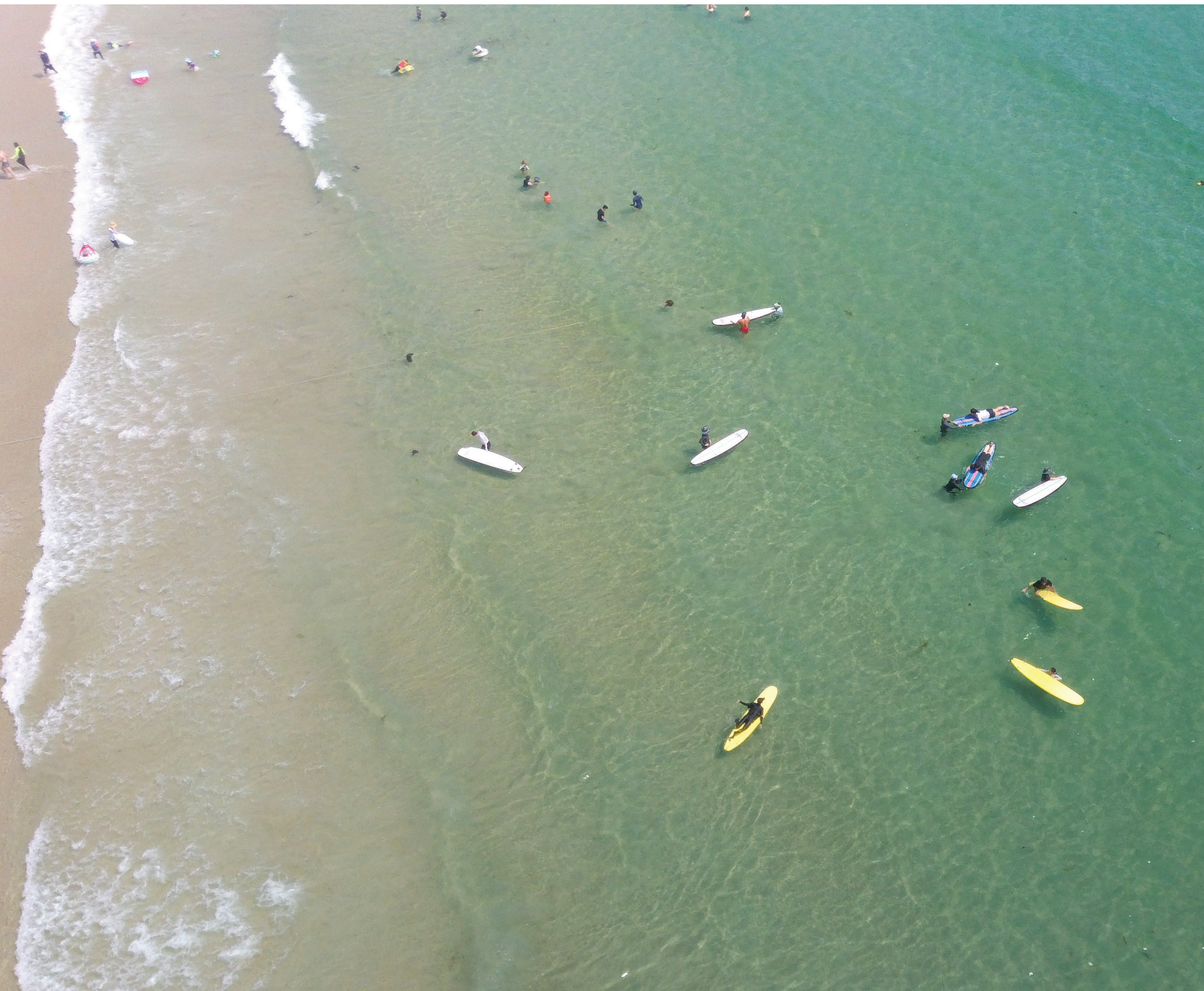
럭셔리한 해양리조트의 품격 엘림마리나&리조트 요트

독일마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바다 위에 요트가 떠 있는 곳이 있다. 물건리방조 어부림 왼쪽 끝에 하얀 리조트가 눈에 띈다. 이곳은 엘림마리나&리조트다. 엘림마리나의 가장 큰 강점은 럭셔리한 요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다 위의 스위트룸이라 불리는 파워요트를 체험할 수 있다. 이곳에는 27인승 파워요트 2대와 12인승 제트보트 2대가 마련되어 있다. 하루에 3번 요트 체험이 가능하고 제트보트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엘림마리나&리조트에서 고급스러운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리조트 건물 1층에는 1930년대 미국 극장에서 사용했던 귀한 아날로그 스피커와 진공관 앰프 등이 구비된 공연장이 있다. 근처의 아날로그홀도 멋지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보물 같은 아날로그 스피커와 영사기, 녹음기 수십 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현건 회장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둘씩 직접 수집한 것들이라고 한다. 실제 음악을 들어보거나 만지며 체험할 수 있어 특히 좋다. 공연장과 아날로그홀 관람은 무료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 길 74-19 | 전화 055-867-6767 | 이용시간 11:00, 14:00, 16:00
요금 파워요트44 성인 50,000원, 소인 40,000원, 제트보트 성인 40,000원, 소인 35,000원 (투숙객 할인)
주차 가능 | 홈페이지 <http://www.elimmnr.co.kr/sub/activity/activity.asp>



03

송정솔바람비치에서 윈드서핑 고고씽 남해 말라끼서프

요즘 남해에서 서핑이 뜨고 있다. 보드를 타고 파도를 즐기는 서핑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송정솔바람비치는 사람이 몰리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유롭게 서핑을 할 수 있다. 또 남해 송정솔바람비치는 부드러운 은빛 백사장과 송림으로 유명하다. 여기 해변 앞에는 섬이나 가로막는 지형이 없어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해변으로 몰아친다. 남해에서 유일하게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송정해수욕장 입구에 배 모양 건물이 눈에 띈다. 이곳은 윈드서핑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남해의 말라끼서프(구 남해서핑스쿨)가 유일하다. '말라끼'는 필리핀어로 '큰 파도'라는 뜻이라고 한다. 초보자도 강습부터 바다에 들어가 실전에 돌입한다. 모래밭에서 한 시간 동안 기본 동작을 익히고 숙련된 강사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송정해변은 파도가 부드러워 초보자도 쉽게 서핑을 배우기 좋다고 한다. 초보자가 윈드서핑을 배우고 싶다면 강습 시간과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가면 좋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83 말라끼서프 | 전화 010-4556-0023
 이용시간 09:00~18:00 | 요금 체험서핑(2시간) 50,000원, 보드 렌탈(2시간) 20,000~35,000원, 레벨업PT(1시간) 80,000원 | 주차 가능





04 아름다운 바다를 맘껏 즐기는 방법 설리체험마을

청정 바다에 풍덩 빠지면 몸도 마음도 후련해진다. 사면이 바다인 남해는 바다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설리어촌마을은 하얀 백사장이 약 500m 정도 이어지고 떼섬, 사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남해에서도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유명하다. 설리해수욕장은 모래가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설리(雪里)'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 설리 바다 놀이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포츠는 카약과 스노클링이다. 특히 카약은 초보자도 도전하기 쉽고, 직접 노를 저으며 바다에서 아름다운 육지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설리해수욕장 방파제에서 카약을 타고 15분 정도 노를 저으면 바다가 아름다운 사도에 도착한다. 카약에서 내려 사도에서 곧바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이다. 카약과 스노클링 외에는 생활낚시가 인기가 좋다.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생활낚시는 미리 미끼를 준비해서 고기를 모이게 한 뒤 그 지점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바구니 가득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설리마을은 어촌뉴딜에 선정되어 설리해변 주변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매점, 체험마을 공동판매장 등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303번 길 75-12 설리어촌체험마을
전화 010-4705-9001 | 요금 카약+스노클링 1인당 35,000원,
생활낚시 1인당 15,000원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 필수) | 주차 가능
인스타그램 @namhae_sulli



남해에서 즐기는 호젓한 사색의 바다

남해에는 작고 호젓한 바다와 해변이 많다. 솔솔이 우거지고, 질푸른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멍 때리기 좋은 곳도 많다. 오랫동안 머물러 즐길 수 있는 사색의 바다를 추천한다.

01 황금빛 노을이 질게 물든 바다 사촌해변

홍현마을에서 10번 지방도를 거쳐 산을 넘으면 사촌해수욕장이 나온다. 고개에서 내려다본 해수욕장 풍경이 기가 막힌다. 해변에서는 광양항으로 분주히 오가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볼 수 있다. 바다 건너는 여수다. 앞전구처럼 반짝이는 야경이 볼 만하다. 남해에서 세 번째로 큰 해수욕장이지만 물이 따뜻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장점이다. 방풍림은 마을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응봉산을 거쳐 설흘산까지 등산까지 겸할 수 있다.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229번 길 44



02 수심이 얕아 가족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 두곡월포해변

앵강만 해안선을 따라 달리다 보면 활처럼 흰 해변이 나오는데 월포와 두곡이다. 두 해수욕장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붙어 있다. 도로와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폭 30m의 몽돌해변이 900m나 이어지고 있고 모래와 몽돌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달밤 아래에서 듣는 몽돌 소리가 그만이다. 끄트머리 꼭두방으로 불리는 바위섬은 낚시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월포해수욕장 근처 가족휴양촌에서 남해 서면 금산과 앵강만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흥덕마을의 계단식 논 역시 가슴을 후련하게 만든다.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11번 길 77



03 은밀하면서도 보석 같은 해변 모상개해변

남해에서 은밀하면서도 보석 같은 해변을 하나 꼽으려면 창선의 모상개해수욕장이다. 마을의 좁은 길을 지나 산을 넘어 막다른 길에 해수욕장이 숨어 있다. 그래서 조용하게 피서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모래가 곱고 에메랄드빛 바다에는 작은 섬들이 둥둥 떠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바다 건너는 사랑도로 지리망산의 기암괴석도 눈에 들어온다. 해변 바로 앞 모섬은 천혜의 낚시터이며 이 섬을 배경 삼아 사진 찍으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모상개해수욕장은 아침 일출을 볼 수 있다.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옥색 물빛이 수놓는 트레킹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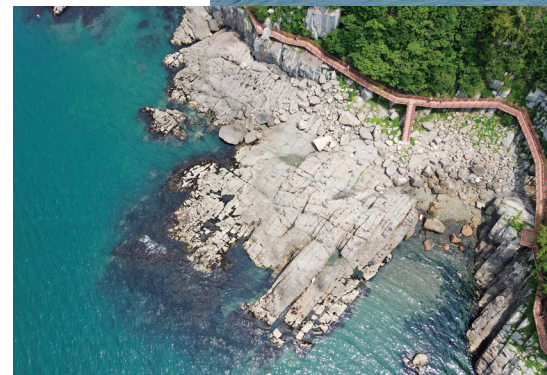
남해 바래길의 꽃으로 불리는 조도와 호도에 걷기 좋은 '섬 바래길'이 열렸다. 이곳은 옥빛 바다가 빚어낸 절경을 따라 걷는 길이 이어진다. 쉬엄쉬엄 섬 바래길을 걸으며 남해의 숨겨진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옥빛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길 조도 바래길



조도는 미조항에서 볼 때 새를 닮아 새섬이라 부른다. 큰 섬은 새의 몸통, 작은 섬은 꼬리 부분으로 두 섬은 바다를 매립한 제방으로 연결되었다. 트레킹의 시작은 큰섬 선착장이다. 해안선 따라 시계방향으로 2.3km, 바다 경치에 취하다 보면 1시간쯤 소요된다.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조도다이어트센터다. 단순히 살을 빼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힐링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 길에는 아자매트와 나무데크가 깔려 있고 리본까지 매달아 길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도화지에 물감을 똑 떨어뜨린 듯한 주변 섬들을 감상하며 걷는 맛이 좋다. 옥색의 물빛은 섬의 정취를 한껏 고조시킨다. 이렇게 섬의 매력에 푹 빠질 즈음 노랑비렁전망대가 나타난다. 쌀섬은 물론 건너편으로 보이는 호도 풍경이 시원하다. 유리 다리 아래로 몽돌밭이 보이고 철썩이는 파도까지 감상한다. 조도 길의 하이라이트는 도장계 전망대다. 그림 같은 주변 섬들과 양식장을 분주히 오가는 고깃배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낸다. 전망대 한가운데에 파란색 그물 의자가 놓여 있다. 투명한 형태는 주변의 고유한 경관을 투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괜히 풍경이 남달라 보인다. 다시 데크 길을 따라가면 작은 섬과 큰 섬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이 나온다. 바닷물이 어찌나 맑은지 속이 흰히 드러난다. 안쪽에 작은 해수욕장이 숨어 있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을 구경하고 나면 난대림 숲길이 나온다. 1km쯤 나무 향기, 풀향기 맡으며 걸으면 마을 가까이에 웃는 우물이 보인다. 섬마을의 식수다. 펜션단지에서 지나면 다시 큰섬 선착장을 만난다.



조도호(도선) 운항시간 미조 - 조도 - 호도

운항	출발	도착/출발	도착/출발	도착/출발	비고	이용요금(왕복)
1	미조 07:50	호도 08:00	적운섬 08:10	큰섬 08:15		대인: 8,000원 소인: 2,000원 도사만: 2,000원 승선정원: 28명
2	미조 08:30	호도 08:40	적운섬 08:50	큰섬 08:55		
3	미조 11:10	큰섬 11:15	적운섬 11:20	호도 11:30		
	호도 12:00	적운섬 12:10	큰섬 12:15	미조 12:20		
4	미조 13:30	큰섬 13:35	적운섬 13:40	호도 13:50		
	미조 15:30	큰섬 15:35	적운섬 15:40	호도 15:50		
5	미조 17:10	큰섬 17:15	적운섬 17:20	호도 17:30	11월~2월	
	미조 17:40	큰섬 17:45	적운섬 17:50	호도 18:00	3월~5월	
6	미조 18:10	큰섬 18:15	적운섬 18:20	호도 18:30	5월~8월	

☀ 여행팁

섬 바래길은 섬마다 2km 남짓 코스로 이루어졌다. 조도와 호도는 각각 한 시간 정도 걸는다고 보면 된다. 미조항에서 섬까지는 10여 분 소요. 승선정원은 28명. 조도와 호도 접안 순서가 시간에 따라 바뀌니 운항시간표를 잘 보고 코스를 짜야 2개 섬을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다. 섬 왕복에 8천 원, 2개 섬을 보려면 1만 원 짜리 표를 끊어야 한다. 생수와 간식을 챙기는 것이 좋다. 호도에는 푸드트럭이 있어 배를 기다리며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다.

문의 조도호 선장 010-9908-7587

코스 예시 08:30 미조항 출발
08:55 조도 큰섬 도착 및 트레킹
11:15 큰섬 출발
11:30 호도 도착 및 트레킹
13:50 호도 출발
14:00 미조항 도착

02

바위 절경이 이어지는 해안탐방로 호도 바래길

호도 바래길은 옛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다녔던 길이었다. 해안 숲길로 2.1km, 1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다.

호도 선착장에서 동백나무 군락지를 지나면 마을이 나온다. 여러 집들이 지붕을 맞대고 있지만 실은 7가구 외에는 빈집이란다. 마을을 지나면 해안탐방로다. 멀리 두미도와 옥지도가 아른거린다. 다시 숲길을 지나면 이곳에서도 그물 의자를 만난다. 어업의 상징인 그물망 형태다. 이곳부터 선착장까지는 험준한 바랑길, 그러나 나무데크 길이 조성되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이 길을 만든 이에게 감사하며 걷는다. 마당바위는 천 명 정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는데, 그 암반이 하나의 바위라는 것이 놀랍다. 저 멀리 설리스카이워크가 아른거리며 브레이크힐즈 남해리조트도 마지막 공사가 한창이다. 호도 바래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륵바위다. 바람에 바위가 위태롭게 서 있는데 힘센 장정 몇 명이 힘을 쓰면 넘어갈 것만 같다. 계단을 넘으면 호도 선착장이다. 운 좋으면 선착장 갯바위 부근에서 물질하는 해녀를 볼 수 있다. 해녀의 숨소리까지 찌렁찌렁 울린다. 성스러운 노동의 절규 같다.

천천히 머물면서 오래 즐기는 바다 상주면 & 미조면

미조항은 남해에서 특히 아름다운 미항이자 국가항이다.
멸치와 갈치를 비롯해 위판장에서 싱싱한 활어와 해산물 경매가 이루어지고 여름별미 맛집이 몰려 있다.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미조도 꼭 둘러볼 포인트다.
상주은모래비치를 품은 상주면은 아름다운 바다가 압권이다.
해안도로 드라이브도 좋고 카페와 인생샷 명소도 많다.
천천히 머물면서 오래 즐기면 더 좋은 미조와 상주는 여름이 더 멋있다.





여기 참 좋다, 상주은모래비치

상주은모래비치는 반달 모양의 백사장이 2km나 이어진다. 모래는 은 가루를 뿌려놓은 듯 부드러워 마치 비단 위를 걷는 듯하다. 바닷물은 맑고 잔잔해 동화 속 호수를 마주하는 기분이다. 수온이 높고 수심까지 완만해 아이들이 물놀이 하기에 좋다. 해변과 하모니를 이루는 송림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선사한다. 하늘 끝에는 금산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서 있어 해수욕장의 가치를 높여준다.

주차장을 나오며 '밤배' 노래비를 만난다. 1973년 가수 '돌다섯'은 남해를 여행하던 중 보리암에 묵게 되었는데 발아래 펼쳐진 상주 해변을 보고 즉석에서 '밤배'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배의 돛 모양의 노래비에는 악보가 그려져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 감미로운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5~6대 중년에게는 추억의 해변이지만, 젊은이에게도 사진찍기 명소로 알려져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쪽빛 바다를 배경 삼아 창공을 날 수 있는 그네(sea swing)와 새끼손가락 언약 포토존도 인기 있다. 꼬트머리에 가면 'SANGJU BEACH'라고 쓰인 포토존까지 있으니 제대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신진서 9단과 박정환 9단이 이곳에서 대국을 두었던 것을 기념한 바둑판 포토존이다. 송림 속에서 청량한 바람을 쐬며 신선놀음에 빠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바둑을 모르면 오목을 두면 되고 그것도 힘들면 알까기를 하면 된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7-4
주차 주차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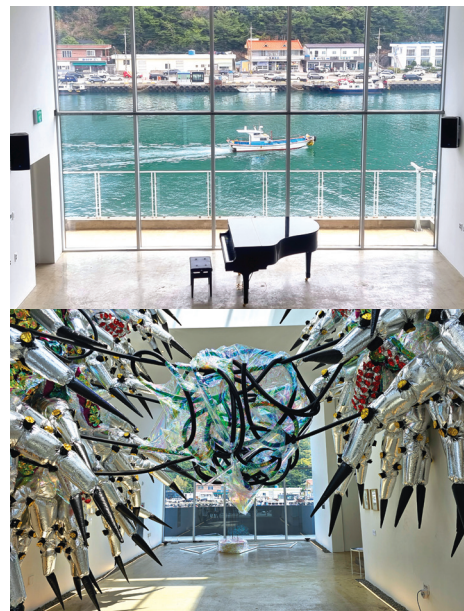




활어처럼 펄떡이는 삶, 미조항 아침 경매

미조(彌助)항은 생동감 넘치는 항구다. 미루이 도왔으니 그 풍광이 오죽하겠는가? 미조항은 멸치와 삼치, 갈치 등이 많이 잡히는 남해 수산업의 전진기지다. 아침 7시쯤이면 활어 경매가 시작된다. 손가락으로 움직이며 가격 흥정하는 모습은 펄떡이는 활어만큼이나 분주하다. 밤새 잡아 올린 감성돔, 도다리, 볼락 등 수십여 가지 생선들이 빨간 대야에 펄떡이고 있어 어항은 늘 활기가 넘친다.

1시쯤이면 멸치 경매를 볼 수 있다. 항구에 정박한 배는 멸치 털이에 여념이 없다. 은빛 멸치가 창공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멸치는 박스에 담기는데 경매장 전체가 은빛과 비릿함으로 가득하다. 갓 잡은 멸치를 삼으로 피서 상자에 담는 모습은 모내기 판을 보는 것 같다.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미조항.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민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게 된다. 내가 미조항을 사랑하는 이유다.



냉동창고의 변신, 스페이스 미조

1986년에 건축한 미조항 냉동공장은 얼음을 만들어 선박에 공급하고, 어획한 수산물을 얼리는 남해 대표적인 산업시설이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저장공간이 부족해진 데다가 새로운 냉동공장을 건축하면서 천덕꾸러기 건물이 되었다. 2년간 도시재생을 통해 콘텐츠를 입혀 갤러리, 공연장,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공간도 넉넉한 데다가 바다까지 끼고 있어 전시공간으로 최고다. 4층의 루프톱에 오르면 미조항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조도와 호도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미조항 앞바다에서는 근사한 리조트의 인피니티 풀장이 보인다. 2023년 8월 28일까지 '파동의 언어'라는 주제로 이병찬 작가의 환경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플라스틱, 봉지, 비닐 등에 호흡을 불어넣어 자본의 팽창과 붕괴 도시의 비현실적인 감각을 시각화했다. 1층은 천장이 엄청 높은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남해섬브라우니와 해당화에이드 등 전시와 연계된 스페셜 음료는 꼭 맛보아야 한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54 스페이스 미조
전화 0507-1350-8072
이용시간 오전 11:00 ~ 19:00 (화, 수요일 정기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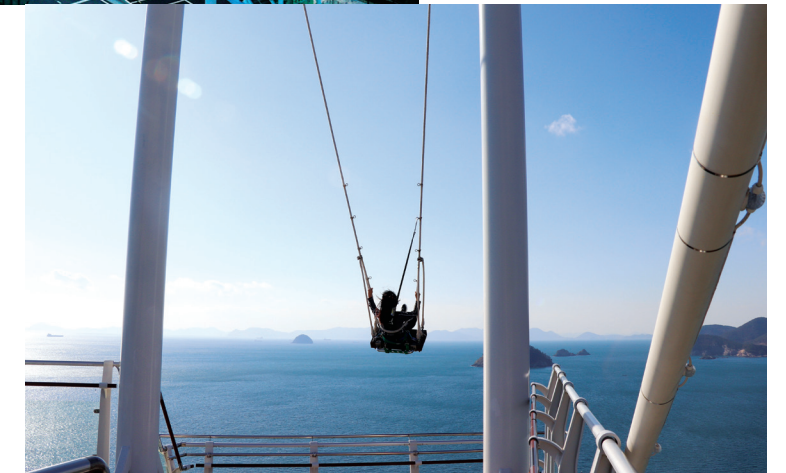


남해미조리상록수림과 무민사

미조항 들어가는 초입, 그러니까 19번 국도의 끝자락. 산 전체가 푸른 숲인 남해미조리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29호)이 자리하고 있다. 풍수 지리상 약한 지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거기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과 고기떼를 유도하는 목적인 어부림 역할까지 하고 있다. 후박나무, 육박나무, 생달나무, 감탕나무, 식나무, 모밀잣밤나무 등 난대림으로 빼곡해 이곳을 찾으면 긴 호흡부터 하게 된다. 워낙 수종이 다양해 식물학자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 숲이 우거지면 마을에 인재가 나온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미조중학교 맞은편 언덕에는 고려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 무민사가 있다. 당시 수군 진영을 순시하고 미조항에 들러 수군들을 격려했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조선 중기에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첨사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최영 장군의 칼과 영정을 모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사당을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주차장에 서면 미조항과 주변 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 포인트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10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303번 길 176
 전화 070-4231-1117

바다 위 창공을 날아라, 설리스카이워크

길이 79.4m, 폭 4.5m, 주탑 높이 36.3m 비대칭형 교량으로 꼬트머리에 유리 전망대를 만들어 놓았다. 바다를 향해 돌출되어 있어 유리 바닥 위에 서면 오금이 저린다. 송정해수욕장은 물론 저 멀리 금산과 보리암까지 볼 수 있으며 바다 건너는 여수 돌산도다. 짜릿함을 만끽하겠다면 스윙 그네에 올라타라. 해수면에서 100여 m는 족히 되는 높이에 공중을 박차고 날게 된다. 마치 바다 위를 다이빙하는 느낌인데 스틸만점이다. 드라마 <여신강림>에서 주인공이 테이트한 장소로 등장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해안을 크게 휘감아 돌면 설리해수욕장으로 남해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해수욕장이다.

남해에서 만나는 여름의 맛

남해 미조항의 위판장 주변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친다. 그날 잡은 각종 생선들이 경매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여행객들도 경매에서 싱싱한 활어를 구입할 수 있고, 맛집들이 미조와 상주에 몰려 있어 맛있는 여름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이 카페보다 더 예쁜 식당 윤스키친

미조항 수협위판장 뒤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윤스키친. 주차를 하고 가게에 들어서면 인형 가게에 잘못 왔나 하고 두리번거릴 정도로 뜨개 제품인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인형부터 각종 액세서리와 가방 등의 소품은 사장님이 손수 만든 것들이다. 식당은 카페처럼 아늑하고 예쁘다. 이 집의 특징은 한 달마다 계절 메뉴를 내고 단일메뉴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월은 파스타, 5월에는 수육보쌈이 메인 메뉴였다. 5월에 맛본 수육보쌈. 단일 메뉴라 음식이 빨리 나온다. 수육과 흰 밥, 미역국, 샐러드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정갈하고 푸짐하다. 식사를 하면서 창문 너머로 남해 바다를 실컷 볼 수 있는 것도 덤이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168, 2동 1층
전화 0507-1362-1535 | 이용시간 11:30~20:00
요금 계절메뉴 17,000원 선 | 주차 가능



02

토박이도 인정한 맛집 가산식당 물회

찌는 듯한 더위를 이기고 싶을 때, 미조항의 식당에서 물회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후련하다. 가지미, 광어 등 생선회가 들어간 일반물회, 전복이 가득한 전복물회 그리고 전복, 멍게, 소라, 문어, 해삼 등이 들어간 해물물회 등 종류도 다양하다. 깔끔한 물회를 원한다면 한치물회를 권한다. 쫄깃한 한치회를 건져 먹고 새콤달콤한 국물까지 마시고 나면 잃었던 입맛도 되돌아온다. 냉동이 아니라 당일 잡은 생물로 요리하기에 싱싱함이 자랑이다. 팔려 나오는 반찬도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44 | 전화 055-867-5774 | 이용시간 10:00~20:00 | 요금 물회 2인 세트 50,000원 멸치회 30,000원 | 주차 가능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318번 길 14 파랑새펜션 1층 | 전화 010-9968-5440 | 이용시간 15:00~20:30 | 요금 모듬회 70,000원 뽕소라회 20,000원 | 주차 가능

03

회포장 전문 '정성도시락'까지 감동 포장집 유서방 회 떠가시다

미조항은 활어경매장이 있을 정도로 싱싱한 횡감으로 유명하다. '유서방 회 떠가시다'의 독특한 상호에는 이유가 있다. 서울 출신 도시 남자가 장인이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 일을 돕다가 싱싱하고도 맛있는 생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횡집을 열었다고 한다. 주문을 받으면 매일 양식장에서 그날분 횡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모듬회는 참돔과 우럭 그리고 귀한 고등어회가 들어 있다는 것이 특징. 거기에 상추와 마늘, 고추, 마늘종과 목은지 등 갖은 채소와 초장과 막장까지 담긴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받게 된다. 회 접시에는 생선 그림 스티커가 붙어 있어 무슨 횡감인지 바로 알 수 있다. 회를 두툼하게 썰어 식감이 좋고 쫄깃하다. 리플릿에는 생선의 특징과 먹는 방법 그리고 매운탕 잘 끓이는 비법까지 적혀 있으니 참으로 감동적이다.

모듬회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 등 다양한 구성으로, 포장만 가능하다. 12시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다. 영업시간은 15:00~20:30까지지만 그날 수족관의 생선이다 팔리면 일찍 문을 닫는다.

04

현지인 맛집 '엄마표 집밥' 명이네식당

미조항이 예쁘게 내려다보이는 명이네식당은 현지인 맛집으로 통한다. 기본 반찬만 먹어도 엄마 집밥을 먹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다. 주메뉴는 멸치쌈밥, 갈치구이, 멸치회무침 등이고 가을에는 갈치회도 별미다. 식당 내부는 크지 않지만 홀이 2개로 연결되어 있다. 멸치쌈밥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매일 아침 경매에서 싱싱한 멸치를 가져와 멸치쌈밥과 멸치회무침을 만든다. 맛도 좋고 신선한 남해 바다의 별미를 맛볼 수 있다. 명이네식당에는 1인도 주문이 가능한 백반 메뉴도 있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18 | 전화 055-867-4413 | 이용시간 10:00~20:00 | 요금 멸치쌈밥 12,000원 멸치회무침(중) 35,000원 | 주차 가능

05

눈코입 사로잡은 남해의 유자도넛 옐로우츄도넛

남해 상주에서 미조면 방면으로 직진해 미조체육공원을 지나면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하와이의 도넛가게처럼 하얗고 파란 원색이 예쁜 도넛가게다. 옐로우츄도넛은 올해 4월에 오픈해 남해 이색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변에 있어 찾기도 쉽고 주차도 편하다. 남해에서 생산된 유자를 듬뿍 넣어 신맛은 강하지 않고 향은 은은해 은근히 맛있다. 미국풍의 건물에 유자도넛의 조합이 신선해 주인장에게 물었다. 김한규, 김지유 부부는 부산에서 생활하다 고향인 남해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게 바로 유자도넛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부부는 부산생활을 접고 독일마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이곳 송정리에 도넛 가게를 열었다. 건물 외관부터 내부, 포장상자, 각종 디자인 등 모든 것을 김한규, 김지유 부부가 발품을 팔아 완성했다고 한다. 무려 14개월 동안 디자인과 도넛 메뉴를 개발했다고 하니 정말 대견스러운 정도다. 건물도 멋지고 맛도 일품인 도넛가게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237-1 2층 | 전화 0507-1349-6865 | 이용시간 11:00~19:00 | 요금 옐로우츄도넛(1박스) 18,000원 아메리카노 4,000원 | 주차 가능

06

고종의 커피 VS 헤밍웨이의 커피 촌집 카페 화소반

상주은모래비치 마을 끝쪽에 있는 남해 촌집 화소반. 마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카페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다. 작은 집이 마치 고래 등처럼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게 이름대로 정말 촌집인데 자개장과 작은 소반으로 정말 단순하게 꾸민 커피가 머리에 각인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갈하고 깔끔하다. 너무 예쁜 카페에 들어서 저절로 주인공부터 만나보았다.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를 사랑채 외벽에 새기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장의 마음이 예쁘고 마음속까지 깊게 간직되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카페다. 커피와 수제 차는 향이 깊고 묵직한 맛이 더해진다. 화과자도 정갈하고 맛있다. 천천히 촌집에 머무는 것처럼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주인장의 마음이 느껴지는 촌집이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74번 길 6 | 전화 010-5088-8888 | 이용시간 11:00~18:00 | 요금 고종의 커피 5,000원 헤밍웨이의 커피 5,000원 화과자 3,500원 촌집 플레이트 소 3,500원 | 주차 가능

08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돌창고 프로젝트

남해읍에서 서면 스포츠파크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육중한 돌창고 건물이 보인다. 1920년대 일제가 쌀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창고로, 중세의 성처럼 견고하게 보인다. 100년을 버텨온 돌창고는 본래의 기능을 지우고 문화 공간 겸 카페로 거듭났다. 입구 벽면 위에 노란 농협 마크가 인상적이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회전문을 통해 내부에 들어가면 딴 세상. 사방이 막혀 어두울 줄 알았는데 천장에서 내린 빛이 내부를 환하게 비춘다. 견고한 건축 구조를 보는 재미가 그만이다. 1층은 갤러리 겸 도자기 공방으로 도자기 체험이 가능하다. 남해를 소개하는 업서와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다. 2층은 카페로, 우드톤의 인테리어 덕분에 푸근한 감성이 전해진다. 테이블도 등성등성 배치되어 여유 있다. 메인 메뉴로는 돌창고 미숫가루, 덩어리 썩떡이 인기가 많다. 3층은 전망대로 주변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포로 487 | 전화 055-863-1965 | 이용시간 11:00~18:00 | 요금 미숫가루 5,000원 돌소금커피 6,500원 유기농 말차라떼 5,000원 | 주차 가능

07

상주해변 명물 중의 명물 1976해주핫도그

상주은모래비치는 남해에서 제일 예쁜 해변이다. 백사장 모래도 굵지만, 바다 색깔이 비취색이나 옥빛으로 빛나는 곳이다. 그런데 상주은모래비치의 명성에 버금가는 숨겨진 곳이 있다. 바로 해주핫도그다. 공식 가게 이름은 해주편의점이다. 이곳의 핫도그가 유명해진 것은 크고 맛있기 때문이다. 그냥 손님들에게 정성으로 보답한다는 주인 아주머님의 기본기가 핫도그에 버무려져 튀겨진 것이다. 주차장에서 소나무숲 입구 바로 왼편에 있다. 찾기도 쉽고 상주해변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친다. 핫도그는 크기가 큰 해주핫도그와 치즈핫도그가 특히 인기가 많다. 주문과 동시에 튀겨준다. 양도 많고 들어갈 때 사서 먹고 나올 때 또 사 먹는다. 입소문이 자자하다. 하지만 주중에는 핫도그를 판매하지 않고 주말에만 핫도그를 팔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7-6 | 이용시간 10:30~17:00 (목요일 휴무) | 요금 1976해주핫도그 3,000원 야채핫도그 2,000원 치즈핫도그 2,500원 소세지 2,500원 | 주차 가능



09

옷칠로 바다를 채우다 옷채아트

남면에서 아름다운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서면에서 남해읍으로 가는 길의 언덕에 빨간 건물이 보인다. 서면에서 바라보는 여수 쪽 바다 풍경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다. 옷채아트는 한국전통공예인 옷칠공예로 만든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곳이다. 옷칠의 깊은 색감과 자개의 영롱한 빛을 이용한 나전칠기 기법과 다른 옷칠기법을 응용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야외에 연인 설치미술과 옥상 전시실에도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야외 갤러리 카페도 오픈한다고 한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03 | 전화 0507-1347-4182 | 이용시간 10:00~18:00 | 관람료 1,000원 | 주차 가능

남해 바다 가장 가까워서 하룻밤 캠핑장

남해는 아름다운 해변이 곳곳에 많다. 그래서 리조트나 펜션에서 머무는 것도 좋지만 해변에서 잠을 자고 곧바로 해수욕도 즐길 수 있는 바닷가 캠핑장을 추천한다.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01 남해군 힐링국민여가캠핑장(앵강다숲)

숲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캠핑장으로 빼곡한 어부림 숲이 자랑이다. 캠핑장 앞바다에는 석방렴까지 볼 수 있다. 계절별 야생화가 꽃을 피우는데 가을이 되면 꽃무릇으로 붉게 물든다. 1만 4,481m² 규모에 야영 데크 35면과 샤워실·화장실 1동, 개수대 3개, 전기시설 12개, 안내 사무실 1동이 갖추어져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 관계없이 가격은 4만~4만 5천 원, Zone A와 B는 바다를 마주하고 Zone C와 D는 숲속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늘 아래에서 바다만 바라봐도 위로가 된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105
 전화 055-862-2227
 이용시간 당일 14:00 ~ 다음날 11:00
 홈페이지 www.남해힐링캠핑장.com



02 상주은모래비치 오토캠핑장

캠핑장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차를 사이트 옆에 세울 수 있어 편하다. 무엇보다 울창한 송림에 텐트를 칠 수 있으며 바다와 접해 해안 절경을 감상하면서 야영을 할 수 있다. 차량번호가 입력되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바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예약이 쉽지 않다. 캠핑장 방파제에서는 낚시가 가능하며 밤에는 나무들 사이로 전구에 불이 들어와 운치를 더한다.

바다 방향 사이트는 30개, 하천 방향으로는 38개가 있다. 위치와 평일, 주말, 성수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7~8월 성수기 바다 사이트는 5만 원이며, 연박을 하면 5천 원 깎아준다. 샤워장, 화장실, 취수장,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 편의점, 식당, 카페 등 편의 시설이 많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7-4
 전화 055-863-3583
 이용시간 당일 14:00 ~ 다음날 12:00 (연중무휴)
 홈페이지 https://sangjubeach.com

03 송정솔바람해변캠핑장

남해에서 2번째로 큰 송정솔바람해수욕장을 앞에 두고 있다. 소나무가 빼곡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캠핑장은 송림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물이 맑고 밀가루 같은 백사장이 자랑이다. 해변에는 액자 포토존이 있는데 구름문양에 설리스크이 워크를 넣고 찍으면 재미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총 51개 사이트가 있으며 1개 사이트당 2만 원이다. 이용 당일 현장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며 인터넷 및 전화 예약은 불가능하다. 주차장 쪽에 송남향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다.



☀ 여행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83번 길
 전화 055-867-3414 / 010-8604-3414
 이용시간 당일 12:00 ~ 다음날 12:00
 홈페이지 www.송정솔바람해변캠핑장.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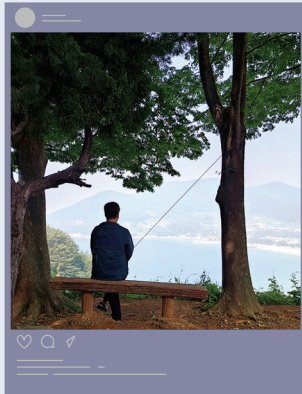
구석구석 찾아가 발견한 바다 포토존

젊은 여행객들에게 남해가 핫한 이유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다. 남해 바다 근처에 카메라만 대면 멋진 사진이 나오는 장소를 구석구석 찾아내 소개한다. 꼭 찾아가 사진을 찍어보자.

01 상주은모래비치 고개 전망대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113번지

상주은모래비치에서 송정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오르다 보면 작은 전망대가 손짓한다. 향아리 모양의 상주해수욕장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내고 있으며 그 안에 옥빛 물이 담겨 있다. 짙은 송림이 해변을 감싸고 있고 그 옆으로 성냥갑 같은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높은 산은 남해 최고의 명산인 금산이다. 파란 하늘과 구름, 금산의 기암괴석, 향아리 모양의 바위와 섬. 이곳에 서면 안빈낙도를 보게 된다.



전망대 옆의 고목은 사시사철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망대 아래는 초록의 발작물이 자라고 있으며 코발트 바다와 절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10여 명이 쉴 수 있는 쉼터까지 조성해 놓아 간식을 즐기며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02 앵강만 포토존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14-1

신전삼거리에서 남서대로를 따라가면 하트 벤치가 있는 포토존이 나온다. 난간에 서면 앵강만과 앵강다숲은 물론 멀리 금산까지 아른거린다. 전통 돌그물인 석방렴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밀물 때 돌담에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갇히면 잡는 전통어업방식이다. 뒷산은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어서 마을 이름이 신전이 되었다. 하트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셔터를 누르면 근사한 사진 한 장 건진다.

03 미조 바다전망대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84번지

초전삼거리에서 미조항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미조면 꽃길이 조성되어 있다. 한쪽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라고 적힌 포토존 푼말을 볼 수 있다. 난간에 서면 팔섬, 마안도, 사랑도는 물론 울망줄망한 섬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복 양식장에 일하는 어부도 볼 수 있다. 포토존에는 '이곳의 풍경을 마음에 담아보세요'라고 적혀 있으니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풍경을 감상하시라.



04 금천갯벌체험장 연인 포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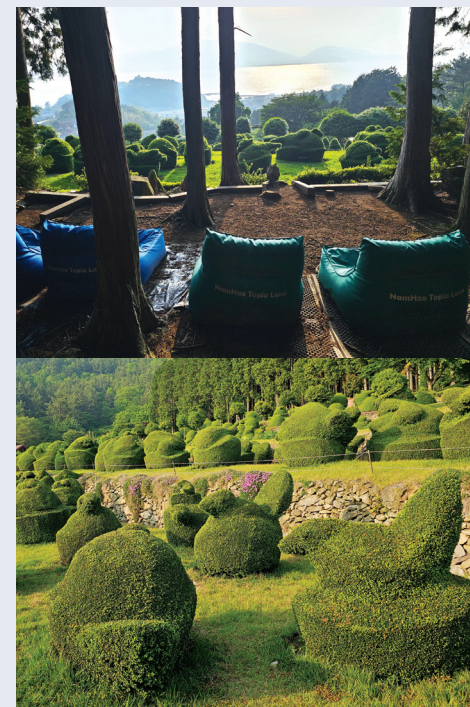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512

독일마을에서 5분쯤 떨어져 있는 금천마을은 조개와 썩을 잡는 갯벌체험장으로 유명하다. 이곳에 연필 데생 형태의 멋진 연인상이 있으니 바다를 배경 삼아 사진 찍으면 잘 나온다. 꽃게 조형물은 아이들이 열광한다.

05 토피아랜드 편백나무숲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70-106

창선면 산자락에 위치한 남해토피아랜드는 국내 최초로 조성된 토피어리 공원이자. 토피어리는 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동물, 사람, 만화 주인공, 기차 등의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든 작품이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에는 편백나무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바다를 볼 수 있도록 근사한 하트 벤치를 만들어 놓았고 빈백, 해먹, 평상까지 조성되어 있다. 조명까지 켜져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길이 협소하니 운전이 조심해야 한다.





몽돌·은빛 모래 반짝이는 남해 '해변으로 가요'

조영호(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남해의 여름은 맑고 깨끗하다. 여름 햇살은 뜨거워도 그늘이면 쾌적하다.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코발트 색이다. 노을은 붉고 진하다. 지중해를 닮았다. 남해의 여름은 길고 고불고불한 해안선처럼 아름답다. 여름이 오면 해안도로는 빛이 난다. 앵강만에서 상주은모래비치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압권이다. 특히 해지는 노을은 흥시처럼 붉다. 남해 노을을 왜 '꽃노을'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오랜 세월 잘 익은 관광 3S시대가 떠오른다. Sand(모래), Sun(태양), Sea(바다)이다. 바다·태양·모래는 대표적인 자연, 휴양 관광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캉스 문화다. 프랑스어로 바캉스는 주로 피서나 휴양을 위한 휴가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본격화되었다. 유럽의 경우 여름 한 달을 즐긴다. 상주은모래비치에는 3S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담겨 있다. 모래, 태양, 바다를 담은 한국 대표 해수욕장이 상주은모래비치다. 1973년 둘다섯의 노래 '밤배'가 당시 상주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상주은모래비치는 남해안 최대 해수욕장으로 국내 바캉스 문화를 이끌었던 곳이다. 여름이면 버스를 타고 바캉스를 즐긴 피서객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울드하게 소환되는 곳이다. 젊은 감각의 해안도를 찾는다면 죽방렴이 있는 지족 해안도로를 따라 독일마을을 마주 보는 물건항, 액티비티 체험이 기다리는 보물섬 전망대, 멸치잡이 한창인 미조항으로 이어진 물미해안도로도 좋다. 이곳을 지나면 몽돌이 구르는 소리도, 바위섬에 부딪히는 파도도 맑고 시원하다. 남해는 면적의 70% 정도가 산이다. 남해는 산이 많아 산이 바다를 본다. 배낭 하나 메고 산을 병풍 삼아 바다를 보며 캠핑을 하거나 걸어도 좋다. 편백숲도 좋고, 정원도 즐겁다. 상상 속 유럽 풍경이 있는 정원을 산책하며 유럽식 홍차를 마시는 즐거움은 덤이다. 뜨거운 햇살을 받아 익어가는 계단식 논길을 걷는 것은 여행의 건강함을 찾는 것이다. 남해는 꽃이 섬이 되고, 길이 정원을 이룬 곳이다. 마을과 마을이 바래길로 이어져 있고, 79개의 섬과 섬이 마주 본다. 조도와 호도에 새롭게 만든 섬바래길을 걷다 밤하늘 은하수를 만나는 것도, 예쁜 카페에서 나를 찾는 것도 여름날 남해여행의 기쁨이다. 장엄한 일출도, 아름다운 일몰도 모두 볼 수 있는 남해. 남해 섬에서 만나는 바캉스 문화, 섬강스를 즐기며 노래해 본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여름날, 셋길로 살짝 빠져본다.



1박 2일간 함께한 남해 섬 바래길 개통식 전국 걷기여행자 대거 참석 후 만족도 매우 높아



남해관광재단(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은 남해바래길 연장 코스로 지난 5월 20일~21일 1박 2일 동안 미조면 조도와 호도를 잇는 섬 바래길 개통식을 진행했다. 미조항에서 배를 타고 진입하는 조도와 호도에 각각 2.3km와 2km의 섬 테마 바래길이 개통된 것이다. 남해군에서 주최하고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관한 섬 바래길 개통식은 수도권에서 참석한 50여 명을 비롯해 180여 명이 참석했다. 재경남해군항우회를 비롯해 국내 최대의 걷는 길 이용자 단체인 한국걷기동호회연합(이하 한동연) 임원,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8인승 조도호를 이용해 2일 동안 두 개의 섬을 수차례 오가야 했기에 섬 바래길 개통식은 어느 걷기 행사보다 복잡한 일정이었다. 그런데도 참가자들로부터 "어느 걷기축제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높은 만족도의 이유로 첫째 감탄사를 멈출 수 없는 절경을 따라 걷는 길, 둘째 주민들이 정성스레 만들어 내어준 음식, 셋째 섬 주민들을 비롯한 전체 스태프들의 친절함 미소를 꼽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생태관광의 꽃이라고 불리는 탐조와 별자리 해설이 곁들여져 호평을 받았다. 탐조는 조도 다이어트센터 옥상에서 왜가리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죽암도 쪽으로 탐조 망원경을 설치하고, 박귀봉 생태환경탐조관광 대표가 전문적인 해설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2020년부터 진행된 남해바래길2.0 리모델링의 완성은 노도바래길 개통(2024년 예정)만을 앞두고 됐다. 노도바래길 이후에는 남해바래길3.0 사업으로 전환해 신개념 바래길로 전환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관광창업교육 진행

군민의 성공을 위한 관광창업교육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참신한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관광창업교육을 실시했다. 남해관광창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 5개 팀 외에도 관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교육이다. 첫 번째 강의는 5월 12일 14시 남해유배문화관에서 '관광 소비 트렌드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진보라 박사가 강의했다. 이어서 로컬비즈니스 사례 공유(동네봄 김순영 대표), 디지털마케팅 전략(부산언니 정소리 대표), 창업아이디어 구체화(푸디온 김태현 대표), 사업계획서 작성법(대동CMC 김대원 이사) 등의 강제가 매주 진행되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민의 관광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해 관광시책화함으로써 남해관광의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창업 교육을 진행했다. 사전에 선발된 예비창업자 5개 팀은 오는 9월까지 교육과 멘토링, 디자인 등 실제 창업까지 지원을 받았다. 조영호 본부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남해에서 관광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 해수욕장, 7월 7일 일제히 개장

재밌고 즐길 거리 가득한 남해 해변으로 오세요!



남해군은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으로 결정하는 한편,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의결했다. 남해군 해수욕장협의회(상주은모래비치·송정솔바람해변·설리해수욕장·두곡·월포해수욕장·사촌해수욕장)는 개장 기간과 더불어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결정했다. 다만, 상주은모래비치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전 해수욕장에 반려견 출입구역을 별도 설정해 운영하기로 한 점이다. 최근 반려견 동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남해군 해수욕장협의회가 시대 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통상 반려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와 차별화된 결정이었다. 남해군은 2023년 성공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개장 전 노후화된 시설보수, 백사장 정비를 비롯한 환경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6월 중 안전관리 요원 채용을 완료하는 등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남해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남해를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맘껏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진 <꽃섬 남해> 여름호 발행 이벤트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발행하는 웹진 <꽃섬 남해>를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맛있는 파리바게뜨 쿠폰을 드립니다. <꽃섬 남해>의 여름 소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문제와 답이 있어요. 꼭 맞춰주세요.

문제 남해군에서 가장 유명한 '상주해수욕장'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모래가 빛이 나 은빛 바다처럼 이름도 아름다운데요, '상주○○○비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1. 남해관광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travelnamhae 프로필 하단 링크 '꽃섬 남해 발행 이벤트' 클릭
2. 네이버폼으로 이벤트 참여하면 끝. (연락처 기재 및 수신동의 해주셔야 참여됩니다)

남해관광 안내 정보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01
남해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namhae.go.kr/tour/
남해군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mhae_gun
남해군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treasure.island.namhae
남해군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mhaegun
남해군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user/namhaegun
남해문화관광 스마트채팅	www.namhae.go.kr/SmartChat/chat.html
남해관광문화재단	055-860-3690 / https://namhaetour.org
남해관광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ntcf
남해관광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travelnamhae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10:00~17:00)

남해관광 콜센터	1588-3415
남해유배관광안내소 (월 휴무)	055-864-4025
가천관광안내소	055-863-3893
창선관광안내소 (주말운영)	055-867-5238
독일마을 관광안내소	055-867-8897
남창선대교타운 관광안내소 (주말만 운영)	055-867-5238
문화관광해설사	055-860-8605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남해각 여행자 플랫폼 (10:00~18:00, 월요일 휴무)

055-864-1905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
여행객들이 남해 여행의 정보를 얻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교통정보

남해공용터미널	1688-7102
남해여객 (시내·외 버스)	055-863-3501
남해택시관광가이드	055-863-8585, 010-4169-8585

www.namhae.go.kr/tour/ (남해문화관광 홈페이지 → 여행가이드 → 관광안내, 2일 전까지 신청)

발행처 남해관광문화재단

발행일 2023년 6월

기획 남해관광문화재단 미래콘텐츠사업팀(055-864-4509 / <https://namhaetour.org>)

제작 (주)상상콘텐츠그룹 (02-963-9891)

※ 이 책에 실린 모든 정보는 2023년 6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꽃
섬
남
해

